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 (상편)

총만국어

www.chongmanguk.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

◆차례◆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1쪽 (68문제)
 두근두근 인생-----26쪽 (29문제)
 흰 바람벽이 있어-----42쪽 (38문제)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59쪽 (65문제)
 광장-----96쪽 (11문제)

2. 문학의 소통

산도화-----103쪽 (33문제)
 흥보가-----116쪽 (43문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39쪽 (40문제)
 즐거운 편지-----158쪽 (24문제)
 로디지아발 기차-----166쪽 (2문제)
 허생전-----171쪽 (38문제)
 남한산성-----193쪽 (9문제)
 총, 꽃, 시-----200쪽 (9문제)
 만화 토지-----205쪽 (2문제)

3. 한국 문학의 성격

송인-----208쪽 (19문제)
 사미인곡-----216쪽 (23문제)
 태평천하-----225쪽 (10문제)

4. 한국 문학의 흐름

제망매가-----235쪽 (40문제)
 청산별곡-----248쪽 (6문제)
 어부사시사-----252쪽 (6문제)
 쉽게 씌어진 시-----256쪽 (12문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262쪽 (10문제)
 김현감호-----269쪽 (3문제)
 구운몽-----273쪽 (6문제)

▶정답-----279쪽

(버전: 2020.03)

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핵심 정리

-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 2) 성격: 고백적, 성찰적, 비유적
- 3) 제재: 복숭아나무
- 4) 주제: 다른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보람
- 5) 특징: (1)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드러냄
(3)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함

1. 표현상의 특징

시구	표현상의 특징
~습니다 /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함. •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고백함.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함.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 습니다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 가만히 들었습니다 /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2. 이 작품의 시상 전개

1연: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는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짐. •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게 됨.
↓
2연: 진정한 관계의 모습, 공존과 사랑의 세계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음.

3. 시구의 함축적 의미

시구	함축적 의미
흰꽃과 분홍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으로 드러난 대상의 피상적 모습 • 이중성, 양면성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편견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
수천의 빛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참모습 • 여러 겹의 마음

4.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음.•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멀리만 지나침.
'복숭아나무'에 대한 재인식·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서 알게 됨.•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됨.•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림.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음.•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음.

5.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이 작품의 화자는 '나'로, 복숭아나무 또는 타인에게 다가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성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이 작품의 주제 의식

- 이 작품은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고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로 비유된 시적 대상에 대해 화자는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으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깨달은 뒤 비로소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속에서 대상과 교감하게 된다.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으나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을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B]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C]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D]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
다

[E]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죽전고등학교 (경기)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특정 대상에 대한 성찰의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 문장의 종결에 변화를 주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생명이 없는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감정을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죽전고등학교 (경기)

2.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A] :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이 드러난다.
- ㉡ [B] : 대상을 피상적으로 인식했을 때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C]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
- ㉣ [D] : 자연물에 감정을 부여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 ㉤ [E] : 공간의 이동이 계기가 되어 화자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죽전고등학교 (경기)

3. 다음을 통해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의 시간의 양상은 시인이 가진 의식의 양상을 보여 준다. 시간에는 시인의 삶이 담겨 있고 시인은 이것을 시어에 담아낸다. 따라서 시어에는 한 시인이 시간을 통과하며 겪어 낸 정신세계의 골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시어의 비유적 의미의 탐색은 시인이 겪어 낸 시간의 의미에 대한 탐색과도 연계된다.

- ㉠ '숲'을 바라보았으나 '몰랐다'는 것은 시간을 통과하기 전의 상태이다.
- ㉡ '간격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거치기 전 화자의 내면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 ㉢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은 시간을 통과한 후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다.
- ㉣ 시인의 현재 가치와 정신세계는 '산불'이라는 시련을 겪어낸 후 형성되었다.
- ㉤ '멀리서' 바라보던 대상을 '들어가' 보았다는 공간의 변화도 시인이 가진 의식의 양상을 바꾸었다.

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흠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

원목고등학교 (서울)

4. (가)에서 화자가 알게 된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함축하는 시구는?

- ㉠ 그 복숭아나무 ㉢ 흰꽃과 분홍꽃
- ㉡ 수천의 빛깔 ㉣ 흠어진 꽃잎들
- ㉤ 저녁이 오는 소리

원목고등학교 (서울)

5.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고 있다.
- ㉡.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드러내고 있다.
- ㉤. 도치법을 활용하여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 ㉡ ㉢ ㉣
- ㉡ ㉢ ㉣ ㉤
- ㉢ ㉣ ㉤

원목고등학교 (서울)

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의미한다.
- ㉡ ㉡은 화자가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 ㉢은 화자가 이해하게 된 대상의 외로움과 아픔을 의미한다.
- ㉣ ㉣은 나무들이 맞닿아 숲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 ㉤은 화자가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원목고등학교 (서울)

7.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나)와 달리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 ㉡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 ㉤ (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오해가 참된 이해로 바뀌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1) 두근두근 인생

1.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나’가 ‘두근두근’하는 심정을 느꼈던 순간		
태아일 때	첫사랑을 느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두근두근’하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음.	‘이서하’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남.	아버지의 품에서 ‘ 쿵..... 쿵..... 쿵.....’ 소리를 들음.
낯선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기대감	새로운 만남에 대한 ‘나’의 설렘과 기대감(첫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	아버지의 두려움과 ‘나’에 대한 사랑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의 상징적 의미: ‘나’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 벅찬 삶의 한 순간

2. 이 작품의 시점

작품은 1인칭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즉 죽음을 앞둔 ‘나’ 아름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력을 발휘해 서술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심리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단순히 1인칭 주인공의 회상이 아닌, 과거 사건의 상상과 현재 벌어지는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과 문학 언어의 특성

직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때마다 나는 여진에 민감한 순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직유법을 통해 ‘나’가 세상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함.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트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직유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가 포근하고 싱그럽게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음을 표현함.
역설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역설적 표현으로 잔잔하기만 했던 ‘나’의 일상에 ‘이서하’가 큰 의미로 다가왔음을 강조함.
은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은유법을 통해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제시함.
도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직유법과 도치법을 통해 병으로 인해 ‘나’의 몸은 가벼워졌지만, 그런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은 더 커졌음을 표현함.



문학 언어의 특성: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언어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보여 줌.

4. 서사적 중층 구조

조로증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서사적 중층 구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젊음의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열일곱 나이에 ‘조로증’을 감내하는 아픈 청춘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주인공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한 채 오히려 세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이 특이한 아이러니가 이 소설의 새로운 매력이 되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는 열일곱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

(가)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쿵쿵- 혹은 똥똥- 이라도 좋았다.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소리 같기도 한 무엇.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여진(餘震)에 민감한 순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던 것이다.

'쿵 짹짹…… 쿵 짹짹…… 쿵쿵 짹…… 쿵 짹……'

쿵은 어머니 것, 짹은 내 것이었다. 쿵은 센소리, 짹은 여린소리였다. 나는 긴 텃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 나무가 초록을 퍼트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트렸다. 그것은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를 말하는 비트(bit)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beat)이기도 했다. ㉠이 비트(bit)와 저 비트(beat)는 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빠라처럼 흘날렸다.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나)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단 말인가?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이서하……."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거나 한 듯. 찌렁찌렁 적막이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열세 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 보았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냈다.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해,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란 말을 써 보았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지웠다. 한 소년의 팔십 먹은 폐와 심장,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나는 김 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다시 그 애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똥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돌아났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다) 아버지는 간호사의 만류 따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그러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쿵…… 쿵…… 쿵…… 쿵……'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 주위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엄마?" / "응?" /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다 물어봐." /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시진 않았을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엄마?" /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다.

"응." "배 한번 만져 봐도 돼요?"

"왜?" / "그냥요." / "알고……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왔다.

"응,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걱정돼서 찾아봤어요."

"……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 주세요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갖지 그러셨느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기억도 굳이 헤집어 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할 리 없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헤원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는 태아 때의 심리를 그려내는 독특한 발상과 표현으로 주인공의 자기 성찰 내용과 잘 어울린다.
- ㉸ 특별한 상황을 겪으며 성숙해지는 부모와 소년의 성장소설이다.
- ㉸ (다)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 ㉸ 사건의 반전에 따른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제목 ㉠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사랑과 설렘으로 벽차고 의미 있었다고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2. 밑줄 친 ㉠ ~ ㉢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상태를 잘못 파악한 것은?

- ㉠ ㉠ :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온몸에 활력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분을 느꼈다.
- ㉡ ㉡ : 상대에게 무시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 ㉢ ㉢ : 사랑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은 주인공의 진실 되고 신중한 마음이 엿보인다.
- ㉣ ㉣ : 아버지와 마지막 포옹을 하며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 ㉤ ㉤ : 두고 떠나는 가족들을 위해 섭섭한 마음도 접고 의젓하게 행동하는 배려심을 보이고 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나)에서 역설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 (2) (다)의 ㉡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법을 찾아 모두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서하’가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라 서른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되고, 그 후로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된다.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빠?”

나는 호흡이 달려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아름아.”

“나 좀 무서워요.”

㉡“……”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 나를 안았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간호사의 만류 따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그러곤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댔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힘에 부쳐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쿵…… 쿵…… 쿵…… 쿵……>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우리는 말 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토성 주위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기분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힘껏 안아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였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곤 다시 자리에 누워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다 물어봐.”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

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우시진 않았을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엄마?”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다.

“응.”

“배 한번 만져 봐도 돼요?”

어머니는 당황했다.

“왜?” . “그냥요.”

“알고……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왔다.

“응,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걱정돼서 찾아봤어요.”

“…… 일부러 숨긴 거는 아니야.”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 머리에 형 손바닥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말해 주세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갖지 그러셨느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기억도 굳이 헤집어 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할 리 없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느끼고 아둔하게 말했다.

“아빠.” / “응?”

“그리고 엄마.”

“그래.”

그러곤 남아 있는 힘을 가까스로 짜내 말했다.

㉠“보고 싶을 거예요.”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한성고등학교 (서울)

4. 위 소설의 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여주기’ 방식의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긴장 국면의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 관점에서 상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 ㉢ 장면이 자주 바뀌면서 인물간의 갈등 양상이 내면적 갈등으로 흐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 서술자의 말하기를 통해 서사의 흐름을 요약하듯 논평하고 있다.
- ㉤ 서술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행동 묘사와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5. 위의 괄호 안의 음성상징어의 서사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아빠의 죄의식과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
- ㉡ ‘나’에 대한 연민의 정과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 ㉢ ‘나’에 대한 애뜻한 심정과 희생에 대한 기대감.
- ㉣ 생명의 신비감에 대한 아빠의 외경심.
- ㉤ 깊은 슬픔을 통해 도달한 ‘나’의 생(生)에 대한 비장한 마음.

한성고등학교 (서울)

6. 위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회한과 인생에 대한 관조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 자신의 아픔보다는 부모의 처지와 심정을 더 배려하는 성숙한 마음을 지녔다.
- ㉢ ‘조로증’ 증세가 악화하면서 ‘아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느끼고 있다.
- ㉣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면서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 ㉤ 아픈 자신을 두고 새 동생을 가진 부모에게 섭섭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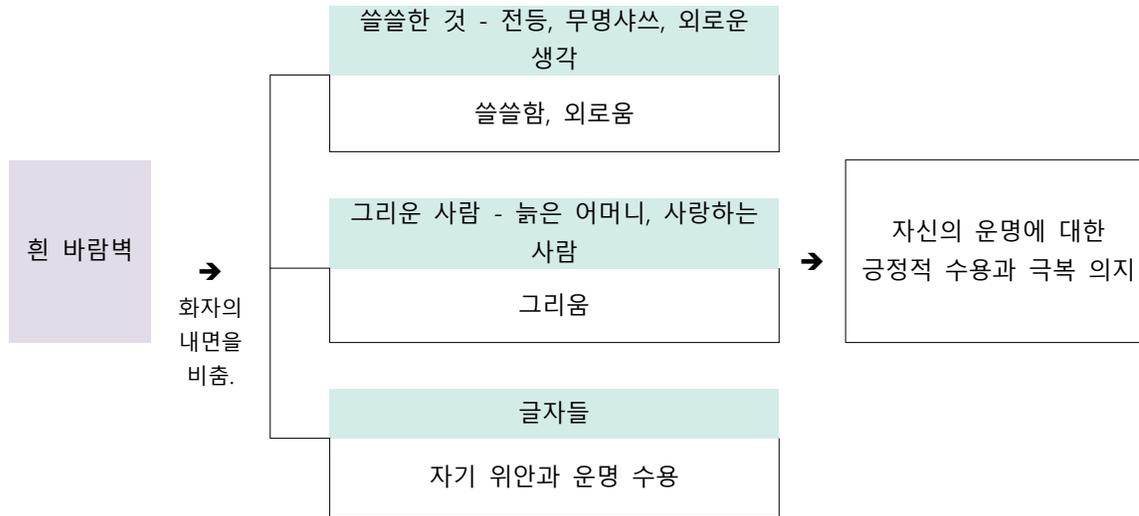
7. 위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아름’이의 말할 수 없는 막막한 심정과 슬픔.
- ㉡ ㉡ : ‘아름’이를 향한 아빠의 애뜻한 심정.
- ㉢ ㉢ : 아빠와 ‘나’가 사람의 교감을 통해 하나가 된 순간.
- ㉣ ㉣ : 새 생명인 동생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
- ㉤ ㉤ :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죽음의 상황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감동적인 장면.

1-(2) 흰 바람벽이 있어

1. '흰 바람벽'의 의미와 기능

- 내면을 비추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흰 바람벽'은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한편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 기능을 한다. 화자는 이를 통해 외로운 자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

-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 '흰 바람벽'에 비치는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의식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화자의 의식에 흐름에 따라 '흰 바람벽'에 영상을 떠올리는 형태로 시상을 전개함.

3.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과 내면 의식의 변화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	내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미한 심오 축 전등의 지치운 불빛 •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의 어두운 그림자 •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쓸쓸함, 외로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	↓
첫 번째 글자들 (나는 이 세상에서 ~ 가득 찬다)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
↓	↓
두 번째 글자들 (하늘이 이 세상을 ~ 그러하듯이)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함.

4.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초생달, 바구지꽃,
작새, 당나귀

- 여리고 순한 속성을 지닌 사물
- 고결한 이미지의 사물

프랑시쓰 쟸,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 고독하게 살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 담담하게 노래한 시인들
- 불행하지만 고결한 삶을 살았던 시인들

-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외롭고 쓸쓸한 삶 속에서도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자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
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곶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
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
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
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
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
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
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한성고등학교 (서울)

1. 위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시상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내면 정서와 태도가 변함을 알 수 있다.
- ㉡ 과거와 부재한 대상들을 회상하면서 깊은 상실감과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탄식하고 있다.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대상 화하고 있다.
- ㉣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
- ㉤ 인간 실존의 한계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2. 위의 ㉡'글자들'에 반영된 화자의 내면 의식과 거리가 먼 것은?

- ㉠ 체념적 태도
- ㉡ 의지적 수용
- ㉢ 자신을 인정하는 자긍심
- ㉣ 자조적 태도
- ㉤ 자아 성찰의 자세

한성고등학교 (서울)

3. ㉠와 ㉡의 시적 의미를 구분하여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 ㉠은 화자의 외부 세계를, ㉡는 화자가 잃어버린 내부 세계를 비춰 준다.
- ㉡ ㉠와 ㉡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회상의 매개체다.
- ㉢ ㉠은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운 대상을, ㉡는 화자가 인식한 자신의 본질적 세계를 보여주는 매개체다.
- ㉣ ㉠은 화자와 현재 함께 있는 실재하는 대상을, ㉡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허구의 세계를 비춰주는 매개체다.
- ㉤ ㉠은 화자의 과거의 세계를, ㉡는 화자의 미래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1-(2) 흰 바람벽이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
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
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
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
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
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
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
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즈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
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원목고등학교 (서울)

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 매개체
- ㉡ ㉡ :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
- ㉢ ㉢ :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표지
- ㉣ ㉣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 ㉤ ㉤ :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

원복고등학교 (서울)

5.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반복과 열거를 통해 정서와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 화자는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하고 있다.
-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
다.
- ㉣ 자신의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고 삶을 관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상념에 잠긴 화자의 상황을 효과적
으로 드러내고 있다.

동암고등학교 (전북)

6. <보기>에서 흰 바람벽에 투영된 것만 고른 것은?

<보기>

㉠ 지아비의 어두운 그림자
㉡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들
㉢ 춥고 가난한 어머니의 모습
㉣ 가난한 결혼생활로 고생했던 아내

- ㉠ ㉠, ㉡
- ㉡ ㉡, ㉢
- ㉢ ㉢, ㉣
- ㉣ ㉢, ㉣

동암고등학교 (전북)

7.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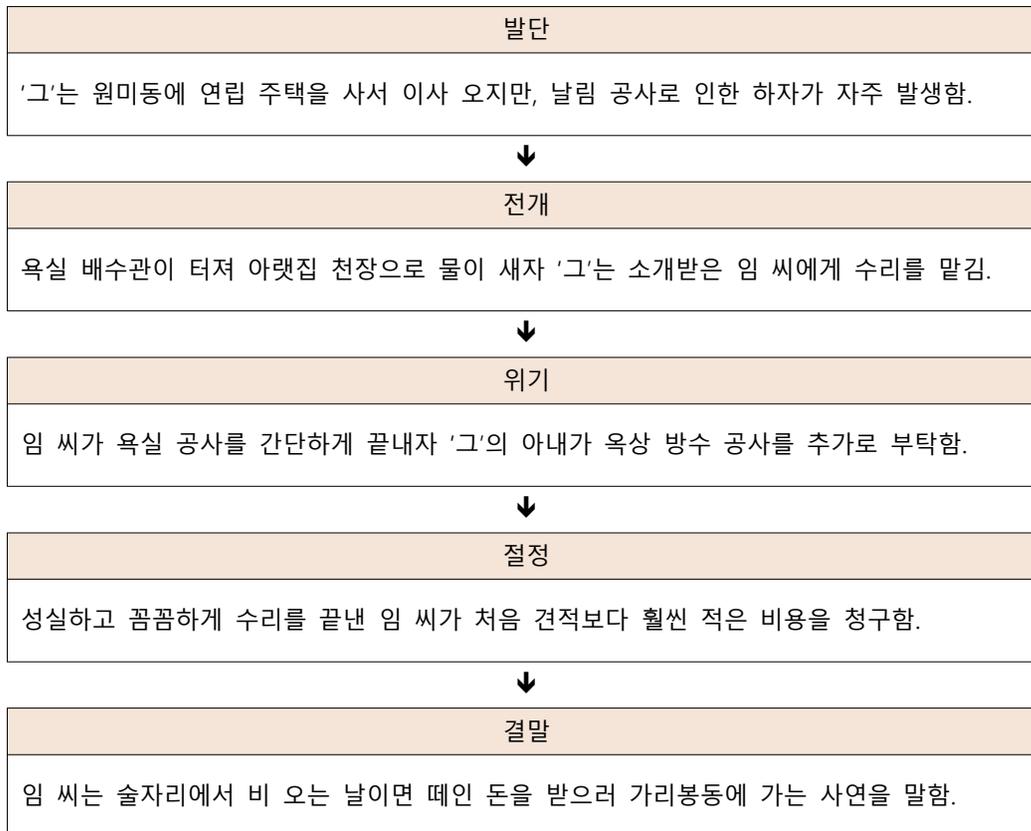
- ㉠ 화자는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 ㉡ 화자는 운명론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화자는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 ㉣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 ㉤ 화자는 떠오르는 생각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1-(2)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1. 등장인물의 성격과 작가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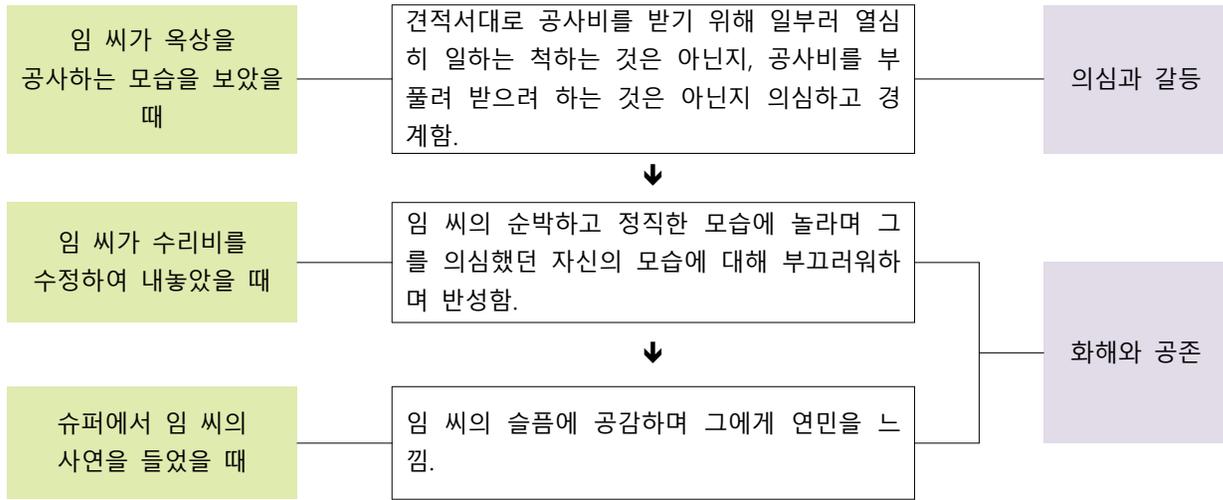
	성격	작가 의식
'그'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 인물. 임 씨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와 동갑이라고 속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려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 • 소외된 계층의 인물에 대한 연민
아내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 임 씨를 의심하며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지급하려는 데서 알 수 있듯 계산적이며 금전적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믿지 않고 이해타산적으로 사는 현대인의 세태 비판 • 현대인의 각박한 삶의 모습 형상화
임 씨	전형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옥상 공사를 꼼꼼히 수행하고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소시민들의 건강한 삶 형상화
스웨터 공장 사장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연탄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의 반성 촉구 •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비판

2. 작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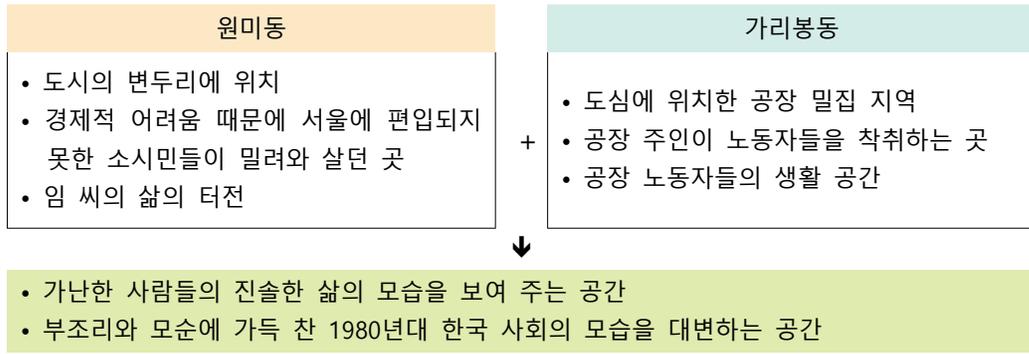
1-(2)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심리



4. 공간적 배경의 의미

- 작가는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어려운 삶을 살던 원미동과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가리봉동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5. 작품의 배경 - '원미동'의 의미

'원미동'은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의미로, 1980년대 생활상을 보여 주는 상징적·보편적인 공간이다. 이때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거리가 멀지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 찬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였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 내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였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중략>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옥상 일까지 시켜 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렸다. 그는 아내가 제발 탄소리 없이 이십만 원에서 이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쥘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엮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며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찌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뼈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나) “내가 이래 봐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 씨는 자신의 아들딸이 네 명이란 것, 큰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년은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재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오,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먹살을 휘어잡아야지.”

임 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짹 빨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 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 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들렸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을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썩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팔십만 원이오, 팔십만 원. 제기랄. 쉼타 공장 하던 놈한테 일 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뭐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 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 “그럼 받아야지, 암. 받아야 하구말구.”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 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 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오.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 “직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 본다. 뻥뻥뻥뻥한 상판에 배는 톱 불거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중략>

“난 말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소.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요, ㉢맨션아파트!”

임 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아파트처럼 들렸다.

1-(2)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구.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짚는 공장에 나뎡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실제 존재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확보하였다.
- Ⓜ 인물의 대사를 통해 과거에 벌어진 일을 요약 제시하여 빠른 서사 진행이 되도록 했다.
- Ⓨ 인물의 외적 특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 Ⓤ 인물간의 대화는 갈등을 고조시키다가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 특정인물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인식변화를 보여주며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2. (가)의 ㉠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은?

- Ⓛ 견적서를 쓰고 있는 임 씨를 바라보며 높은 공사비를 요구할까봐 애태우는 그의 태도로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그려려했다.
- Ⓜ 적게 산출된 견적서는 임 씨의 정직함과 착한 심성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되었다.
- Ⓨ 유치한 분홍 편지지로 된 견적서는 임 씨가 공사 일을 임시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 Ⓤ 임 씨가 견적서의 내용을 세세하게 고쳐 쓰는 모습을 통해 정직한 노동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 Ⓥ 계산이 달라진 견적서를 보고 역정을 내는 모습을 통해 경제관념이 투철한 현대인들의 속성을 비판하려 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로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한 임씨에게 아내가 대가를 덜 지급할까 우려하는 그는 사려 깊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 Ⓜ 임씨가 열심히 일하는 의도가 돈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아내의 스웨터 공장 사장과 같은 탐욕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음이다.
- Ⓨ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다가 형씨라고 말하는 임씨는 마음씨 착하고 사람들과 친근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 Ⓤ 열심히 일하는 척 열정을 보인다고 오해했던 임씨에게 공감과 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그는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다.
- Ⓥ 임씨의 순박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장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물이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임씨가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를 대상과 목적을 밝혀 20자 이내로 쓰고, (2) ㉠, ㉡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속한 사람이 ㉡에 대해 갖는 반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나)에서 찾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압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을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 내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것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 씨는 여덟 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구,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 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은문 낼하고 쉬었다 하모 좋을 끼고만 일머서본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는 잘 살 끼요.”

노모의 덕담을 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꼽아서 못 보지만 그렇기 일 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마는.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이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 씨는 그가 부어 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 들고 조심스레 목울대로 넘겼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 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 칠을 하는 연탄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

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팔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서른여섯 아닙니까.”

임 씨가 서른여섯에 토끼띠라면 그는 서른다섯의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열린 “이 양 받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다.

“그래요? 나는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터라 이 말씀입니다. 현대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이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찌고 해 쌓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든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옥상 일까지 시켜 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탄소리 없이 이십만원에서 이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다.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

“사모님. 내 뽕아 드린 견적서 좀 쥘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 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얹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며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1-(2)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임 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찌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뼈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5. 위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 임씨의 본업은 간판을 달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일을 하는 설비업이다.
- ㉡ 노모는 임씨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를 대변해 주는 서사적 역할을 한다.
- ㉢ 그는 임씨의 심정과 처지를 배려하여 일부러 나이를 속인다.
- ㉣ 아내는 공사비를 깎으려는 마음에 임씨가 견적서대로 대금을 청구할까봐 은근히 걱정하며 기다린다.
- ㉤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자 나와 아내는 임씨의 정직함에 당혹감을 보인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6. 위의 소설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박한 도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 ㉡ 급작스런 산업화의 흐름에서 야기된 타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따뜻한 이해와 공감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 이 소설을 읽은 독자는 문학을 통해 자신이 겪지 못한 타자와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삶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다.
- ㉣ 서술자의 요약적인 제시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의 인과적 구성을 짐작하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 빈부의 갈등과 신분 이동이 단절된 완고한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대립하는 공간적 모티브를 설정하여 긴박감 넘치게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족고등학교 (대전)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도시민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ㄴ.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ㄷ. 사건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중심인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 ㄱ
- ㉡ ㄷ
- ㉢ ㄱ, ㄴ
- ㉣ ㄴ, ㄷ
- ㉤ ㄱ, ㄴ, ㄷ

남산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의 제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① 2.⑤ 3.② 4.③ 5.⑤ 6.③ 7.② 8.② 9.④ 10.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본질을 뜻한다. 11.② 12.① 13.④ 15.② 16.③ 17.④ 18.③ 19.⑤ 20.② 21.⑤ 22.흰꽃과 분홍꽃, 수천의 빛깔 23.⑤ 24.⑤ 25.③ 26.③⑤ 27.④ ⑤ 28.④⑤ 29.④ 30.(1) 수천의 빛깔, 여러 겹의 마음 (2) 복숭아나무 그늘 31.② 32.① 33.⑤ 34.④ 35.③ 36.④ 37.[A]와 [B]에는 화자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A]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으며, [B]는 자신의 차별적인 시각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한다. 38.② 39.① 40.③ 41.⑤ 42.⑤ 43.① 44.㉠ 외롭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 ㉡ 가난하지만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45.② 46.⑤ 47.④ 48.㉢은 화자가 '사람이 앓지 못할' 곳이라는 편견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고, ㉣은 '여러 겹의 마음을 읽'고 대상을 이해한 후에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해의 공간이다. 49.④ 50.③ 51.③ 52.⑤ 53.⑤ 54.③ 55.⑤ 56.③ 57.② 58.고단한 삶 속에서도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59.③ 60.② 61.④ 62.① 63.미로처럼 복잡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한 발짝 더 다가서 보세요. 64.② 65.② 66.③ 67.⑤ 68.④

1-(1) 두근두근 인생

1.④ 2.② 3.(1) 고요라는, 퍼졌다. (2) 직유법, 도치법 4.⑤ 5.② 6.① 7.① 8.① 9.③ 10.④ 11.⑤ 12.① 13.④ 14.① 15.④ 16.② 17.성실하게 일하던 주인공인 수남이가 남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고 자전거를 뺏긴 상황에서 자전거를 되찾는 길은 자전거를 훔쳐오는 방법뿐이다. 뒷글을 통해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부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18.② 19.① 20.주인공인 '나'의 살아온 날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기록한 성장 소설이면서 진정한 부모가 되어가는 어른의 성장 소설이기도 하다.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 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 철부지 같던 어린 부모가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점차 진정한 부모가 되어 간다는 점 21.② 22.① 23.⑤ 24.심박 소리로 어머니와 나가 교감하고 있다. 25.④ 26.③ 27.② 28.④ 29.역설법, 저쪽에는 침묵으로 말하는

1-(2) 흰 바람벽이 있어

1.② 2.④ 3.③ 4.⑤ 5.④ 6.③ 7.⑤ 8.④ 9.좁다란 방 10.④ 11.④ 12.① 13.⑤ 14.③ 15.③ 16.⑤ 17.③ 18.거울, 두 시어는 공통적으로 작품 내에서 화자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9.③ 20.⑤ 21.③ 22.② 23.고단한 삶 속에서도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 한다. 24.③ 25.③ 26.② 27.①④ 28.① 29.⑤ 30.⑤ 31.④ 32.② 33.① 34.㉠에서 나열된 시어들은 외롭고 고결하게 살았던 시인들로, 화자는 이들과 같이 자기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고결하게 살고자 한다. 35.③ 36.③ 37.이 시는 흰 바람벽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와 같이 글자들이 지나간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의식을 시각화한다. 이러한 글자들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삶을 운명으로 수용하며, 높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 38.①

1-(2)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1.④ 2.⑤ 3.② 4.(1)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간다. (2)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요. 5.① 6.⑤ 7.⑤ 8.임 씨가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9.③ 10.① 11.(1) 사회는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해 발전하므로 시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스웨터 공장 사장이 임 씨의 연탄값을 떼어 먹은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으므로 개인의 이기적인 삶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12.② 13.② 14.① 15.① 16.② 17.② 18.① 19.① 20.'임 씨'의 넉넉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와 '아내'의 소시민성을 부각한다. 21.④ 22.④ 23.① 24.② 25.② 26.① 27.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소시민들이 사는 공간이므로 멀지만,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므로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28.④ 29.⑤ 30.① 31.(1) 일을 해 (2) 일을 하지 못 하는 (3) 떼인 연탄값을 받으 (4) 노동자 32.② 33.② 34.⑤ 35.④ 36.③ 37.② 38.임 씨의 지하실 방은 정직하게 일한 노동자의 궁핍한 삶을 의미하고, 스웨터 공장 사장의 맨션아파트는 부당하게 부를 축척한 자본가의 삶을 상징